

# 抱朴子

編輯委員會

## ■ 편집자 주

유명한 古典의 하나인 「抱朴子」를 번역문으로 실는다. 포박자는 중국 晋代의 사람 葛洪이 東晋초년 317년에 쓴 책이다. 포박자는 본래 106편이던 것이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內篇 20권과 自敍를 합한 外篇 52권이다. 內편은 신선술에 관한 것으로 그의 仙術중심인 金丹(丹砂에서 제조한 金)에 관한 것이며 外편은 政治, 家世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自敍는 이들을 총괄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內편의 중요한 대목을 고른 것이다. 포박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거의 잊혀진 책인 듯 싶지만 오래지 않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佛, 仙, 道家는 물론 우리와 같은 한방가들에게는 필독의 문헌일 뿐 아니라 생활 깊이 받아들인 진귀한 지혜이기도 하다. 포박자의 사상을 들여다 보면 그속에는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여기에는 과학적 합리성과 종교적 신비성이 어색하지 않게 조화되는 가운데 자유와 운명과 통일이라는 것이 「自然」속에서 성숙한 융합을 이루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해볼 '신선' 이니 '불로장수' 와 같은 문제가 잘 정돈되어 설지 않게 제시하는 것도 거기 있다.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는 「道」를 이해하고 그에 합하는 일은 반드시 불로장생과 같은 문제와 결부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를 결코 외면하거나 등한히 할 수가 없다.

포박자는 그런 점에서 우주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볼 가치라 할 것이다.

## 제1장 신선(神仙)이란 무엇인가?

### 1. 지상(地上)의 신선(神仙)은 천상(天上)의 신선을 바라지 않는다

#### (1) 천선(天仙)과 지선(地仙)

포박자(抱朴子) 가로되 옛날에 우리 선사(先師)에게 듣자오니,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仙人)이 혹은 천(天)에 오르고, 혹은 지(地)에서 살되 요는 서로가 장생(長生)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주류(住留)는 제각기 그 좋아하는 것에 따를 뿐이다.

또한 선단금액(還丹金液)을 복용하는 법이 있다 만일, 잠시 세상에 류재(留在)하기를 원한다면 반제를 복용하고, 그 반은 잘 보관한다. 후에 승천(昇天)을 구할 때에는 그 나머지 전부를 복용하면 된다 불사의 조건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잠시 지상에서 쉬거나 또한 명산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될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 (2) 욕망의 정화

팽조가 말하기를 천상에는 존관대신(尊官大神)이 많다 했다 신선(神仙)의 사람들은 그 위(位)가 비천해서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고 다만 노고(勞苦)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오르고 싶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머물기를 원하여 이미 800여년이 지나고 말았다

## (3) 금액(金液)

옛날 안기선생(安期先生), 용미영공(龍眉寧公) 수양공(修養公) 음장생(陰長生) 등은 모두 금액반제(金液半劑)를 복용하고 선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인간세계에 머물기를 혹은 천년이 가까웠는데, 그 후에야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 (4) 현재의 욕망(慾望)

확실히 논한다면 장생을 구하는 자는 오늘의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래 승천하려고 급급하여 비등하는 것이 지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다행히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빨리 천상에 오르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이상 좋은 일은 없다 또 만일 신선을 얻어, 집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 된다 그래서 팽조의 말은 인정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상사(上士)는 우선 장생하는 것을 일삼고 장생이 정해짐으로써 모든 것을 뜻에 맡길수가 있게 된다. 만일 현(玄) 곧, 하늘의 수도를 다하여 천선이 되고서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인간의 인리(人理)에 따라 지선이 된다 팽조나 노자와 같은 인물들은 이 세상에서 수백년 동안을 살았어도 인리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그 후에 서서히 등하(登遐), 승천하였다 이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 2. 신선과 산수화(山水畵)

### (1) 참새가 조개되고

옛날에 선을 얻은 사람은 혹은 몸에 날개가 생겨서 변화비행하여 인간의 근본을 상실하고 거기에다 이형(異形)을 얻는다고 해서 참새가 조개가 되고 꿩이 큰 조개가 된다고 하는 것과 같아서 그러한 것은 인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감미로운 음식을 먹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음양을 통하고 관직에 처하기도 해서 이목이 청명하고 골절이 튼튼하여 안색에 기쁨이 떠돌고 늙어서도 쇠하지 않고 수명이 오래도록 장생하여 마음대로 자기의 집에 머물면서 한 온과 풍습에 상함을 입지 않고 귀신중정(鬼神衆精)도 범할 수 없으며 전란이라든가 여러가지의 해독도 나를 해칠 수 없으며 걱정이나 기쁨 창피를 당하거나 명예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일 처자를 버리고 혼자서 산중이나 호수속에 있으면서 막연히 인리를 단절하고 마치 목석과 같이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무엇을 부러워할 것이 있겠는가

## 3. 마음을 정화(淨化)하는 길

### (1) 도(道)는 전진(戰陣)속에서

혹은 말한다. 상사는 도를 삼군에서 득하고 중사(中士)는 도를 도에서 얻으며 하사(下士)는 도를 산림에서 얻는다고.

이것은, 모두가 다 이미 선약(仙藥)이 얻어졌지만, 승천을 원하지 않고 삼군에 있을지라도 창과 칼이 상함을 입히지 못하고 도시에 있어서도 인화가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사(下士)는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상품(上品)에 속하는 자는 선도를 배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삼군이나 도시에 머물러야만 득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황제나 노자는 아직도 지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 (2) 최하의 신선은 장수하는 것

그 경에 말하기를 상사가 도를 얻으면 올라가서 천관이 되고 중사가 도를 득하면

곤륜에 서집(棲集)하며 하사가 도를 득하면 세간에서 장생한다고 하였다

#### 4. 40리(四十里)의 지포 상공

##### (1) 하늘을 날으는 비차

혹은 조심목(棗心木)을 사용해서 비차를 만들어 우혁(牛革)을 가지고 환검(環劍)에 결부시켜 그 방아쇠를 잡아당긴다

혹은 마음속으로 사념하여 오사(五蛇) 육룡(六龍) 삼우(三牛)를 생각하고 강성(罡星)을 넘어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기를 40리가 되면 그곳을 불려 태청(太淸)이라고 한다 이 태청속에서는 기가 심히 강해져서 곤잘 지상의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 (2) 지상의 성층권

스승이 말하기를 “독수리가 높이 날을 때에 다만 양날개를 펼치는 것만으로 조금도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되는 것은, 점차로 강기를 얻기 때문이다 용도 계층운(階層雲)에 도달하여 40리의 상공에 이르면 거기에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가게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선인에서부터 나와 세속에 번져 나왔던 것이다 참으로 범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5. 대낮에 하늘로 오르는 천상의 신선

##### (1) 상성(上成)이 승천(昇天)하다

만일 구전(九轉)을 취하여 하늘의 가마솥 곧, 신정 속에 넣어 하지(夏至)의 후에 이것을 정열(鼎熱)로 볶아, 주아(朱兒) 한근을 뚜껑 속에 넣고 복동(伏伺)의 훈기와 일정(日精)을 그것에 비치게 되면 잠깐동안 흡연(翕然)하게 태양의 정과 불이 하나가 되어 타올라 황황휘휘(煌煌輝輝)하게 빛이 빛나며 오색의 신비스러운 신광이 바로 변하여 선단이 된다. 이것을 취해서 일도규(一刀圭), 곧 한순갈을 복용하면 즉시 백일승천(白日昇天)하게 되는 것이다

##### (2) 최고의 신선은 태을원군(太乙元君)

원군(元君)은 천신선(天神仙)의 인간이다 곤잘 음양(陰陽)을 조화시키고 귀신풀우(鬼神風雨)를 역사(役使)하며 구룡과 십이백호에 참가(驂駕)하여 천하의 중선들

## ■ 抱朴子

이 모두 그를 따랐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근본은 도를 배우고 단을 복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자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물며 평범한 범인들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 제 II 장 인간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가?

## 1. 생명은 최고의 가치

### (1) 생명은 모든 것의 근본

포박자는 말하기를 천지의 대덕을 생이라고 한다 생은 물(物)을 좋아하는 자이니라. 이제, 곧잘 이것을 잘 해내는 자는 다만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으로 이것을 비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도가 일단 성립되면 곧, 그것으로 장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장생의 도는 도의 지상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고인들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다

### (2) 한몸은 우주와도 같은 것

한 사람의 몸은 한 나라의 형상이다 흥복의 위(位)는 마치 궁실과 같고 사지의 열(列)은 마치 국경과 같으며, 골절의 분(分)은 마치 백관(百官)과 같고 마음(여기에서는 신이라고 표현되었다)은 마치 군주와도 같으며 혈(血)은 신하와 같고, 기는 백성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몸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곧잘 국(國) 곧, 나라를 다스릴 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인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 기를 기르는 것은 그 몸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이 산산히 흐트러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기가 말라버리면 그 몸이 죽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일단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고 망한자는 다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3) 수도의 길은 정성

만일 마음에 생을 구하는 뜻이 있다면 급하지 않은 일들은 멀리 뒤로 미루고 현묘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도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

는 자라 할지라도 속정이 남아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진심으로 수양을 하지 않고 세상일을 보다가 여가가 생길 때에 선도의 수업을 하려고 하여도 대개는 늙고 병들어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 (4) 탐욕(貪慾)

대체로 사람들이 급급하게 바라는 것은 세리와 기욕이다. 그러나 내 몸이 건전치 못하다면 금과 옥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옆에서 시중하는 미인이 만의 수를 헤아린다 하여도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고인이 말하기를 “생에 있어서의 자아에게는 이(利)가 또한 큰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 귀천을 논한다면 그 벼슬이 제왕이라 하더라도 이법 곧, 선도와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고 그 경중을 논하는 바에 있어서도 천하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 선도의 술(術)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왕(死王)이 쥐가 되기를 원한다고 비유한 말이 있게 된 것이다.

#### (5) 불로불사(不老不死)

이 금을 모형(牡荊)과 적서주(赤黍酒)속에 적시어 백일이 되면 부드러워져서 자유롭게 휘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팥(小豆)과 같이 환(丸)을 만들어서 일환(一丸)을 복용하기를 하루에 3회를 하고 한근을 다 복용하면 삼충(三蟲)과 복시(伏尸), 백병(百病)이 모두 제거되어 맹자(盲子)는 보게 되고 농자(聾者)는 듣게 되며 늙은이는 점점 젊어져서 30세 때와 같이 된다 그러면 불에 들어가도 타지를 앓고 백사(百邪)와 중독(衆毒), 냉풍(冷風)과 서습(暑濕)도 침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2. 기(氣)와 혈(血)

### (1) 만물생성의 근본

인간은 기중에 있고 기는 인간속에 있다. 천지에서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기를 기초로 하여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기를 잘 호흡하는 자는 내적으로는 신체를 보양하고 외적으로는 악을 퇴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날마다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모르고 있다

## ■ 抱朴子

### (2) 기(氣)의 보급

그러므로 낡은 기를 뽑아 버리고 새로운 기를 마셔 들이는 것은 기에 의해서 강건해지지만 기가 크게 쇠하면 장수하기가 어렵다. 약물을 섭취하는 것은 우주에 있는 피의 근원을 취해서 체내의 혈을 이익케 하는 것이 되지만 체내의 혈이 아주 작게 되면 아무리 약물을 먹어도 보급하기가 어렵게 되고 만다.

### (3) 기의 결핍 방지

바빠 뛰어다녀 숨이 험떡거리고 혹은 기침을 하고 혹은 숨이 괴롭고 하여 힘을 사용하고 몸을 구사해서 급급히 어수선해지는 것은 체내의 기가 결핍된 징후인 것이다. 얼굴색이 광채가 없어지고 피부가 꺼칠하며 입술이 마르고 맥박이 약해지고 살결이 트는 것은 피가 감소해 있는 증후인 것이다. 이 두가지 증세가 밖으로 나타나 쇠하면 우리들의 체내에 있는 영근(靈根), 곧 영적인 근본의 힘도 시들어지고 만다. 그러한 때에는 상약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만다.

### (4) 생명의 근본

무릇 도를 닦아도 성립되지 않고 생을 영위하면서도 죽음을 얻고 있는 자는 기와 혈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기의 체내에서 기가 되고 혈이되고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 이미 상실되어 있어 다만 그 가지가 잠시동안 살아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불타는 것은 물속에 넣으면 금시 꺼지지만 연기는 잠시 남아있는 것과 같고 이미 밑뿌리가 갈라진 나무기둥의 가지와 잎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은 연기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잎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연기가 되게하고 잎이 되게하는 그 근본이 이미 먼저 죽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 3. 방중술(房中術)

### (1) 행기(行氣)는 호흡법

포박자가 말하기를 신선을 구하려고 원한다면 그 지요(至要)를 얻어야 한다. 지요는 정을 보하고 기를 행하며 일대약(一大藥)을 복용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의 삼사에는 또 천심이 있다. 그래서 이에 정통한 명사를 찾아 근고를 겪지 않으면

급히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행기(行氣)에는 수법(數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또 방중술에는 백여가지의 방법이 있고 복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수천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부터 배우게 된다. 뜻이 변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으며 근로한 끝에나 그 요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4. 호흡법(呼吸法=行氣)

##### (1) 태식(胎息)

그러므로 기를 행하면 혹은 그것을 가지고 백병을 치료할 수 있고 혹은 은역(癰疫), 곧, 역병(疫病)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뱀과 호랑이를 금하여 제지할 수 있으며 혹은 상처의 피를 지혈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수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는가 하면 수상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혹은 기갈을 피할 수도 있어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대요(大要)는 태식(胎息)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

##### (2) 태식의 방법

태식을 얻은 사람은 곧잘 코와 입을 가지고 호흡을 하지 않고 포태(胞胎)속에 있을 때와 같이 하게되면 바로 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기행(氣行)을 배울 때에는 코속으로 기를 들어마신 다음 이것을 멈춘 후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수를 세기를 120에 이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입을 통해서 조용히 기를 내뿜는다. 기를 내뿜고 또 그것을 들여마시는데 있어서는 모두 다 자기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기의 소리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많이 들여 마시되 내뿜을 때에는 작게 내뿜어야 하며 홍모 즉 기러기 털을 가지고 코와 입 사이에 붙여놓고 기를 뿜을 때에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마음속에서 헤아리는 수가 천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천에 달하게 되면 늙은 사람이 젊어지게 되는데 일(日)에 하루하루가 젊어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 (3) 생기(生氣)와 사기(死氣)

행기를 행하는데 있어서는 어김없이 생기의 때에만 해야 되며 사기의 때에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선인(仙人)은 육기(六氣)를 복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일일일야(一日一夜)에 십이시(十二時)가 있다. 그



## ■ 抱朴子

반야(半夜)부터 시작하여 일중(日中) 곧 정오에 이르기까지의 육시(六時=여섯시)를 생기라고 하고 일중(日中)에서 부터 시작하여 야반(夜半), 곧 한밤중에 이르기까지의 육시(六時=여섯시간)를 사기라고 했다. 이 사기의 시간은 행기를 하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 5. 죽음과 인생

### (1) 죽음의 공포

말하자면 깊이 깊이 구천(九泉)의 아래로 들어가서 긴긴 밤이 끝없이 계속되는 암흑의 세계. 처음에는 루의(虬蟻), 곧 도르래루와 개미 같은 것들의 양식이 되고 드디어는 먼지 흙과 몸이 하나가 된다. 사람으로 하여금 달연(怛然)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돌차(咄嗟), 곧 한탄하지 않겠는가

### (2) 인생은 짧다

시간은 화살과 같이 날라가서 잠시 젊어졌다가 금새 늙어버린다 심하게 말한다면 신속하기가 비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년의 수도 삼만여일(三萬餘日)뿐. 유약한 시절에는 아직도 아는 것이 없고 늙어서 나이가 차면 환락을 폐하게 된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와 또 혼모(昏耄)의 시기 즉, 노년기(老年期)를 합하여 수십년을 제거하고 곤난과 걱정, 질병이 계속 되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년수는 거의 절반이 없어지고 만다.

### (3) 6~7천일에 불과한 애락

비록 꼭 백년의 수명을 얻은 사람도 희소평화(喜笑平和)는 5~60년에 불과하고 돌연 멸망하여 쇠우혼모(衰憂昏耄)의 날은 6~7천일에 불과하다 과거를 돌아다보면 이미 인생은 끝나 있는 것이다. 하물며 백년을 다 사는 사람은 만(萬)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 (4) 생의 허무

자세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 역시 하충조균(夏蟲朝菌), 곧 여름철의 벌레와 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는 균을 웃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도를 모르는 자들은 심히 슬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리어(里語)에 의하면 이와같은 말이 있다 사

람이 이 세상에 있어서 하루에 한날을 잃어버리는 것은 소와 양을 끌고 도살장에 가는 것과 같다. 한 발자욱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죽음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꼴이 된다 이 비유의 말은 수준이 낮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말한 것이다.

## 6. 통달한 사람도 죽음은 두려워한다

### (1) 생과 사

달인(達人)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장생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다. 그들은 본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술(術)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없이 걱정하고 초조해 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을 즐기고 명을 안다고 하면서 일부러 걱정을 하지 않는 것 뿐인 것이다 결코 그들이 장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 (2) 공자도 슬퍼한 죽음

희공(姬公)으로 무왕(武王)에 대신할 것을 청하고 중니(仲尼)는 지팡이를 끌고 슬퍼하며 생각했다 이것으로 성인도 또한 죽음이 빨리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속인은 장주(莊周)에게 대몽(大夢)의 비유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한 서로 경쟁하면서 사생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논(論)을 펴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궤도강달(詭道強達), 양작위억(陽作違抑)의 말이므로 모두 중니가 율을 깨뜨리고 살(殺)에 응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 (3) 장주(莊周)의 삶

노자는 장생구시(長生久視)를 가지고 업(業)으로 삼았다. 그리고 장주(莊周)도 묘당(廟堂)에서 신구(神龜)가 되느니 차라리 깨끗하지 못한 물속에서 꼬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북이가 되어 사는 것이 더욱 좋다고 했다.

그리고 제물로 희생시키기 위하여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해 주는 그러한 소는 되기 싫다고 했다. 그후에 기아에 허덕여 속(粟), 수수를 하후(河候)에게 구했다고 했다. 이것을 보아도 사생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학(晩學)은 허와 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쪽 말만을 믿고 쓸리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 제Ⅲ장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약은 있는가?

### 1. 신선의 도는 위생과 치병(治病)이 근본

#### (1) 조사(早死)는 도(道)에 위배

자기의 재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며 생각하는 것은 손상이 된다

또 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것을 들어 올리는 것도 손상이 된다 비애 초췌(悲哀憔悴) 곧, 슬퍼하면서 초조해하는 것도 손상이 되며, 희락이 과한 것도 손상이 된다. 한편 자기가 원하는 것에 급급한 것도 손상이 된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며 담소하는 것도 손상이 된다. 침식의 때를 잃는 것도 손상이 되고 활을 쏘는 것도 손상이 된다. 심취하여 구토하는 것도 손상이 되는 것이며 포식하고 즉시 자는 것도 손상이 된다 뛰어 다니며 숨을 쉬기 괴롭게 하는 것도 손상이 되며, 환호곡읍(歡呼哭泣)하는 것도 손상이 되는 것이며 음양을 교류하지 않는 것도 손상이 된다. 손상이 쌓여져 극도에 도달하면 빨리 죽게 된다. 그리고 빨리 죽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 (2) 모든 것은 중용이 필요

이로써 양생(養生)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침을 뱉어도 멀리 가지 않도록 한다. 걸음을 걸을 때에도 빨리 걸어서는 안된다. 듣는 데에 있어서도 극단스럽게 듣지 말고 보는데 있어서도 오래 보아서 안된다. 오래 앉아 있지 말게 해야 하며 누워있을 때에도 피로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추우면 빨리 옷을 입어야 하고 더 워지면 재빨리 옷을 벗어버린다. 배가 심하게 고파질 때 음식을 먹어서도 안되고 음식을 먹되 과식해서는 절대 안된다.

목이 말라도 심하게 마를 때 마셔서도 안되고 마셔도 이것 역시 과음을 하면 좋지 않다. 먹는 것이 과하면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마시는 것도 지나치면 담(痰)의 질병이 생기게 된다

#### (3) 지나친 것은 해롭다

심하게 일하거나 심하게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빨리 일어나거나 아침에 잠을 자서는 안된다 땀을 흘리는 것도 좋지 않다. 많이 자는 것도 안된다 달구지

를 빨리 달리거나 말을 뛰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시선은 지나치게 먼 곳에 두어 원망(遠望)하는 것도 좋지 않다. 냉(冷)한 것, 생(生)것을 많이 먹어도 안되며 음주하고 바람을 쐬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여러번 목욕하는 것도 좋지 않다. 지나치게 뜻을 넓게 갖고, 소망을 멀리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교(異巧), 곧 진기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겨울에 지나치게 따뜻하게 하면 안된다. 여름에 지나치게 선선하게 하여도 좋지 않다. 별 밑에 누워 있어도 안된다.

수면중에는 어깨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대한(大寒), 대열(大熱), 대풍(大風), 대무(大霧), 이러한 모든 것을 범해서도 안된다.

#### (4) 오미(五味)의 균형이 필요

오미(五味)가 입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균형이 깨질 정도로 무슨 맛이건 많으면 안된다. 신맛이 지나치게 많으면 비장(脾臟)이 상하게 되고 쓴맛이 과하면 폐를 상하게 하며 매운 맛이 과하면 간이 상하며 짠맛이 지나치면 심장을 해친다. 단맛이 지나치면 신장에 병이 든다. 이것은 오행자연(五行自然)의 이치이다.

## 2. 의술(醫術)

### (1) 육해(六害)와 삼형(三刑)

육액(六厄)이 서로 만나고 삼형(三刑)이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 재앙이 반드시 크게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운세가 성(盛)하는 사람은 여러가지의 질병이 새로 생기게 되고, 또 과거에 질병을 앓았던 사람은 그것이 발동하여 재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道)를 닦는 사람은 의술(醫術)을 겸하여 배우고 근화(近禍)를 구해야 한다.

### (2) 일신의 질병을 먼저 치유해야

범용(凡庸)의 도사는 이 이치를 모르고 남에게 들은 것만을 믿고 병의 치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혹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유거(幽居)하여 오직 내사(內事)만을 행하여 병통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병통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범인들이 탕약(湯藥)을 복용

## ■ 抱朴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다 한단의 보행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후퇴하여 자기의 고향 수릉으로 간, 한 소년처럼 남의 말을 따르다가 자기를 상실하고 마는 일이 없어야 한다

### 3. 의서(醫書)와 포박자(抱朴子)

#### (1) 마취제 마비산

나는 대패(戴霸) 화타(華他)가 모아 놓았던 금궤, 록낭(綠囊), 최중서(崔中書), 황소방(黃素方) 그리고 백가(百家)의 잡방(雜方)의 오백권, 감호(甘胡), 여부(呂傅), 주시(周始), 감당통(甘唐通) 원남하(阮南河) 등이 각기 선집(選集)한 폭졸비급방(暴卒備急方)의 혹은 일백십(一百十) 혹은 팔십사(八十四) 혹은 팔십오(八十五), 혹은 사십육(四十六) 같은 것들을 읽은 일이 있다. 세인들은 모두 이 방(方)들이 정실(精悉)해서 더이상 보탬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2) 비치해야 할 의서(醫書)

내가 열심히 이것을 관찰해 보았을 때 특히 여러가지의 급변에 대해서는 불비점(不備點)이 많았고 심지어는 아직도 다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

또 혼만잡착(渾漫雜錯) 곧, 이것 저것이 섞어져 잘 추려지지 않고 또 잡스럽고 혼돈되어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으며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가 있어도 즉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급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 귀한 약을 써야만 하는데 거기에는 수십종류가 있고 부자거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러한 큰돈이 마련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맞을 수가 없다.

내가 골라낸 백권은 그 이름이 옥함방(玉函方)이라고 하는 책이었다. 모두 병명을 분별하고 그 종류를 가지고 계속했으나 서로 잡착, 곧 맞지 않고 헝크러지는 일이 없었다 그 구십(玖拾)의 3권은 모두가 단행본이어서 해석하기가 용이하여 그것을 간단하게 검험하기 쉽다

울타리 아래, 좁은 시골길에는 잘 살펴보면 모두가 약초이다. 급하게 일어난 병도 이 모두가 잘 비치된 방이 자기 집에 있으면 의사가 필요없게 된다.

## 4. 침(鍼)과 뜸(灸)

### (1) 오래된 의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

한편 많은 사람들이 침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 그 구법은 그 혈의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다만 몸가운데 공혈(孔穴)·영위(榮衛)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옛날 의사로서 상세하게 명당류주언칙(明堂流注偃側)의 그림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잘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 5. 그 시대의 의사

### (1) 실력없는 의사들

의사의 대부분은 세업(世業)을 승습(承襲)하여 이름 곧 명(名)은 있으나 실속은 없었고 다만 허성을 좇아 영리를 피하고 있었다. 빈곤한 퇴사들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상대했을 경우 대부분은 오진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스스로 의학의 요점을 배우는 것이 무지한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었다

### (2) 치료받기 어려울 때

의사는 대부분 세업을 승습하여 이름이 있어도 실(實)이 없고 다만 허성(虛聲)을 넓혀서 재리(財理)를 피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빈곤한 퇴사(退士)는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오진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스스로 의학의 요점을 배우는 것이 무지한 의사 앞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 6. 제사의 기도를 비판하다

### (1) 여러가지의 미신들

포박자가 말하기를 얼굴을 들어 천문을 관하고 엮드려 지리를 찰하며 풍기(風氣)를 점하고 주산을 펴며 삼기(三基)를 추(推)하고 구궁(九宮)을 보하고 팔괘(八卦)를 검하며 비복이 모이는 곳을 생각하고, 요화(詔訛)를 물유(物類)에 진(診)하며 휴구(休咎) 곧, 길흉을 구첩(龜筮)으로 점치는 것은 모두 하술상지(下術常伎)이기 때문

■ 抱朴子

에 피로만 가져다 주고 믿기가 어렵다

(2) 아무도 모르는 금단(金丹)

세상의 도사들 중에서 금단에 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없다

얕은 소견의 무리들은 신선의 도의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모르고 무서(巫書)라든가 또는 제사배복(祭祀拜伏)하는 가운데 신선의 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3) 금단대약(金丹大藥)

오래 삶은 제(制)로서 큰 약이 있을 뿐이다

사초(祠醮) 곧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 진한(秦漢)의 2대에 크게 기도를 일으켰다 제사를 올리는 곳에는 태을(太乙)·진보(陳寶) 팔신(八神)의 속에 자칫하면 우양곡금(牛羊穀帛)을 사용하고 전억만(錢億萬)을 소비했어도 결국은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

하물며 보통의 필부들이 아무런 덕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신체도 제대로 요양하지 못하는 주제에 더구나 삼생주효(三牲酒餼) 곧 소와 양과 돼지, 그리고 술과 여러가지 반찬으로 귀신에게 축원하여 이것을 가지고 장수하려 하였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4) 많은 사람들은 신선을 희구한다

상당한 호사자들이 있다. 진심으로 도를 닦으려고 원하지만 유명한 명사를 애써 구하더라도 이 약을 합쳐서 만드는 일에 어둡기 때문에 다만 주야로 필요없는 서적을 수천백권이나 읽고 강의를 하면서 늙을 때까지 하여도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천하에는 신선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5) 신의 기도는 효험이 없다

혹은 가족의 전체가 열중하여 머리로 땅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신에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가지의 제물들을 요리하고 향을 피우면서 복을 원해도 환자는 전연 치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재산이 없어지고 무엇 하나 영험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아직도 스스로의 신심이 돈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6) 초나라로 가려다 연나라로 가는 꼴

만일 정성 들여 방(方)을 아는 스승을 구하여 기도와 제사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선약을 사용하면 반드시 신선을 얻어 세상을 초월하여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늙을 때까지 공허하게 돌잡발을 이루고 천창(千倉)의 수확을 꿈꾸며 힘을 다하여 지쳐버린다 하더라도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소위 초나라에 가려고 하면서 연나라로 가는 격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7) 부귀(富貴)는 기도와 별개

내가 친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 수명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들은 신명을 섬기지 않고 또 일생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으며 제사도 드리지 않는데도 몸은 장수를 하고 명예도 높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부귀를 누리고 살고 있었다

(8) 믿지 않아도 재앙은 없다

나는 그러한 제사기도에는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춘하추동의 사시에는 선현선조들을 위한 제사만은 지낸다

내가 과거에 유력한 곳은 수륙만리여서 길가의 방묘들이 수백개가 있었지만 여행에 갈 때나 돌아올 때나 한번도 가까이 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마가 뒤집히는 변을 당한 일도 없었고 물을 건너면서 풍파에 시달리는 일도 없었다. 또 때때로 질병에 걸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악물의 힘을 얻어 살았고 전란 속에 휩쓸리는 일이 빈번히 있었어도 다행이 상자(傷刺)의 환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더 귀신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 태평도(太平道) 오두미도(五斗米道)와 포박자

(1) 장각(張角)의 태평도

앞에서는 장각 유근·왕근 이갑의 무리들이 있어 친세라고 부르며 소술(小術)에 반탁하여 앉으면 있고 일어서면 없어지고 형모를 변하게 하여 무식한 대중들을



## ■ 抱朴子

속이고 규합시켜 불로장수를 선전하고 나아가서는 재난을 없애고 병을 치료한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좋지 못한 당을 소집하여 역란을 부르짖고 했으나 오래 가지 못하여 스스로 죄에 굴복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양인(良人)을 잔멸시키기도 하고 혹은 백성들을 속여서 재리를 도모하는가 하면 돈과 비단이 산적하여 그 부가 왕공(王公)을 넘어서게 되어 방종과 사치와 음란을 일삼고 사치의 옷과 값지고 맛있는 음식을 취하며 기생과 첩이 방안에 가득차고 관현(管絃)이 줄을 지어 있으며 자객사사(刺客死士)들이 그 때문에 있게 되었다. 그 권위는 나라의 군주를 능렀고 그 세력은 정부보다 강하여 망명하는 사람들과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다

### (2) 방관만 하던 종교

모두 관이 규치(糾治)하지 않음으로써 그 환을 개탄하고 있었다 그 원인을 찾고 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측 사람들이 필부들이어서 그 이치를 보아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백성을 대하는 관장은 그들에게 신이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금지하면 혹시 화와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두려워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지식조차 없었다

또 자기들의 요구에 있어서 그것을 취체하는 일이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관리들의 완고한 처자들이 그 교를 열심히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의 소인들도 이것을 저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심(至心)이 없는 사정 아래 모두 이구동성으로 탄압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관장도 의혹하고 손을 떼기 때문에 누구나 팔을 걷고 발분하는 사람이 없었다.

## 8. 상약(上藥) 중약(中藥) 하약(下藥)

### (1) 상약(上藥)

신농사경에서 말하기를 “상약은 사람의 신체가 평안해지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올라서는 천신이 되어 상하를 오유하고 만영을 사역하여 몸에 모우가 생기게 하고 행주가 즉시로 도달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2) 중약(中藥) 120종, 하약(下藥) 125종

또 말하기를 중약(中藥)은 성(性)을 양생하고 하약(下藥)은 병을 제거하며 곧잘 독충을 처리하며 맹수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중요(衆妖)가 도망치게 한다

9. 신선이 되는 약의 성분과 제조법

(1) 선약(仙藥)의 원료

선약(仙藥)의 상품은 단사(丹砂), 다음은 황금(黃金), 다음은 백은(白銀), 그 다음은 제지(諸芝), 또 그 다음은 오옥(五玉), 다음은 운모(雲母), 그 다음은 명주(明珠), 그 다음은 옹황(雄黃), 다음은 태을우여량(太乙禹餘糧), 다음은 석중황자(石中黃子), 다음은 석계(石桂), 다음은 석영(石英), 그 다음은 석뇌(石腦), 다음은 석유황(石硫黃), 다음은 석이(石이), 다음은 증청(曾靑), 다음은 송백지(松栢脂), 복령(茯苓), 지황(地黃), 맥문동목(麥門冬木), 거승(巨勝), 중루(重樓), 황련(黃連), 석위(石韋), 저실(楮實), 상시(象柴) 등이다

제IV장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는가?

1. 금단법(金丹法)

(1) 단(丹)을 제조하는 법

제일의 단은 이름하여 단화(丹華)라고 한다. 우선 현황(玄黃)을 만들고 옹황수(雄黃水), 반석수(礬石水), 용염(戎鹽), 로염(鹵鹽), 각석(礬石), 모여(牡礪), 적석지(赤石脂), 활석(滑石), 호분(胡粉), 각 수십근을 사용하여 육일니(六一泥)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불에 굽기를 36일이 지난 후에 이것을 7일동안 복용하면 선인이 된다. 또 현고(玄膏)를 가지고 이것을 단으로 동그랗게 만든 다음, 맹화(猛火) 위에 두면 금시 황금이 된다 한편 240수를 가지고 수는 백근과 합쳐 이것을 불에 구워도 또한 황금이 된다 이렇게 하여 금이 되면 약이 된 것이다. 만일 금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약을 봉해 이것을 불에 굽기를 일수전과 같이 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 ■ 抱朴子

### (2) 태청신단(太淸神丹)

포박자가 말하기를 또 태청신단(太淸神丹)이 있다. 그 방법은 원군(元君)에서부터 나왔다 원군은 노자의 스승이다 태청관천경에는 9편이 있다고 한다

그 상의 3편은 교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 중의 3편은 세상에 전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항상 3천의 아래 깊이 가라앉혀 놓고 있다. 그리고 하의 3편이 바로 이 단경(丹經)이어서 상(上), 중(中), 하(下)의 각 3권이 있다

## 2. 모든 것은 변화한다

### (1) 화학사상의 연금술

변화의 술이 무엇이든 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본래 사람은 몸은 드러나 보이지만 이것을 숨기는 방법이 있다 귀신은 원래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또 이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곧잘 이것을 해내는 자들이 많이 있어왔다

### (2) 방제(方諸)와 양수(陽燧)

물과 불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취하는데 제수(諸燧)를 가지고 한다.

납의 성은 백색이지만 이것을 적색으로 바꾸어서 단을 만든다 그리고 단의 성은 적색이지만 이것을 백색으로 바꾸어 납을 만든다. 운우상설(雲雨霜雪)은 모두 천지의 기로 이루어진다.

약으로 이것을 만들면 진짜의 것과 다름이 없다

## 3.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 (1) 동물학상의 변화

비주(飛走)의 속(屬), 유동(蠕動)의 류에 이르러서는 형을 조화에서부터 받아 정해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돌연 낯은 몸을 바꾸고 개편되어서 이물(異物)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천가지 만가지가 되어 구태여 논할 필요가 없다

### (2) 인간들의 변화

인간이 인간됨은 그 성이 가장 귀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남여로 그 형을 바꿀

수 있고 학이 될 수도 있으며 돌이 될 수도 있고 호랑이나 원숭이가 될 수도 있고 모래나 자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고산이 물웅덩이가 될 수도 있고 깊은 산골짜기가 언덕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물질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곧 천지의 자연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물질을 가지고 금은의 이물을 만들 수 없다고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 (3) 감응사상(感應思想)

이것을 비유하면 양수(陽燧)로 얻는 불도 방제(方諸)로 얻는 물도 우리가 항상 쓰는 수화와 별다른 것이 없다 뱀이 용이 되고 모삼(茅糝)이 고(豪)가 되는 것도 스스로 생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그 근원이 연유하는 것은 모두 자연의 감치여서 이(理)를 다하고 성(性)을 다하는 자가 아니면 그 지귀(指歸)를 알 수가 없다 시작을 알고 끝을 보는 자가 아니고서는 그 정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 (4) 유교와 신선의 도

협관근식(狹觀近識)한 자는 소혈(巢穴)에 질곡(桎梏)되어 연묘(淵妙)를 불칙(不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화를 거짓이라고 여겨 주공(周孔)이 말하지 않고 또 그들이 저술한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 멀리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 4. 연금술(鍊金術)

### (1) 유향(劉向)과 연금술

또한 속인은 유향(劉向)이 금을 만들려 하였으나 만들지 못하였던 일을 놓고 천하에는 과연 그 길, 곧 도(道)는 없다고 했다. 이것은 전가(田家)가 혹은 홍수나 가뭄으로 해서 수확을 못한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오곡은 번식하여도 수확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 (2) 상류층의 관심

환담(桓譚)의 신론에서 말하기를 「사자심(史子心)」이 불리움을 받아 승상의 사관(史官)이 되어 집을 진 다음 이졸(吏卒)과 관노비들에 협조케 하여 금을 만들도록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 抱朴子

승상은 스스로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보고했으나 태후(太后)는 금이 욕심나지 않지만 그것을 복용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하고 사자심을 랑(郎)으로 임명하고 그를 북궁 속에 기거케하면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대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찌하여 그 신방(神方)을 작업하는데 있어서 더구나 궁중에서 범인들과 함께 했던가, 유향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 (3) 청결과 정성이 필요

또 황백(黃白)의 술도 역시 신단(神丹)을 합하여 하는 것과 같이 백일 이상의 절제(潔齋)가 필요하다

또 때를 얻어 처방에 관한 책을 읽을 때에는 의합(意合)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며 탁예(濁穢)한 사람, 또 총명치 못한 사람 그리고 음양오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이 작업을 함께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4) 구결(口訣)의 오의(奧義)

그 중에 혹은 구결을 중요시하는 자도 있지만 모든 면에 있어 구결이 있었다 금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산중에서도 청결한 땅에 들어가 범속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유향은 궁중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만들었고 궁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돕게 했다. 그들은 정결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구결의 비전이 속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찌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 (5) 동서의 연금술의 차이

속간(俗間)에서 증연(繪練), 곧 흰색의 비단을 염색하는데에도 무관계한 사람들이 그 일하는 것을 보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속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작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물며 금과 은을 만드는데 황백의 술에 있어서이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제각기 요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터득해야 한다. 만일 그 법을 터득하지 않고 함부로 일을 하면 술, 간장, 식초, 국, 곰국 같은 것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대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 5. 금의 제조(製調)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1) 얻기 어려운 재물

나는 과거에 정군(鄭君)에게 질문하기를 “노군(老君)은 득난(得難)의 화(貨)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치(至治)의 세상에서는 모두 금을 산에 던져 버리고 옥을 산골짜기에 버린다 그런데 고인들은 어찌하여 금을 귀하게 여겨 그 만드는 법을 남겼을까 잘 모르겠다

### (2) 금은(金銀)은 만들어야

정군(鄭君)이 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략) 진인이 금을 만들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이것을 복용하여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일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경(仙經)에서 말하기를 “금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도를 깨달아서 장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은도 역시 복용할 수 있지만 다만 금에게는 미치지 못할 뿐이다.

## 6. 조제(調製)한 금은 자연의 금보다 훌륭하다

### (1) 제작한 금액(金液)

나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간의 금은을 복용하지 않고 이것을 화작하는지. 그러한 것을 만드는 것은 진짜가 아니요 진짜가 아닌 것은 사위(詐僞)일 뿐이다”

### (2) 자연의 금보다 인공의 금이 우수

정군(鄭君)이 나에게 답하여 말했다 세간의 금은은 모두가 좋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사들은 거의 가난하다 그러므로 속담에 “뚱뚱한 선인이 없고 부자의 도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사도(師徒)가 혹은 10인 혹은 5인이 되는데 어떻게 금은을 얻어 공급할 수 있겠는가 또 먼데 가서 채취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인공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한편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제조한 금은 제약의 정이기 때문에 자연의 그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경(仙經)에서 말하기를 “단정은 금을 생기게 한다”고 했다 이것은 단사를 가지고 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산중에 단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래에 많은 금이 나온다고 한다.

### (3) 인조(人造)의 금은 불변

인간의 손으로 제작한 금은 진짜 중에서도 모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일 백번을 되풀이 소련하여도 감소되는 일이 없다. 금은 부드러운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금은 “못으로 때려도 아무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신선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은 당치않은 말이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증청을 가지고 철에다 바르면 철은 적색이 되어 동과 같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달걀의 흰자위를 그위에 바르면 노랗게 되어 황금과 같이 된다. 이것은 모두 외면만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지 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 7. 불로장생(不老長生)은 학문의 힘에 의한다

### (1) 유주구전(流珠九轉)

그렇기 때문에 선경에서 말하기를 “유주구전(流珠九轉)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말하지 않고 화해서 황백을 만들어 자연히 서로 사용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사로 금을 만들어 이것을 복용하고 승선(昇仙)하는 자는 상사가 되고 지(芝=버섯)를 먹고 도인(導引=체조)을 하고 행기(行氣)를 하여 장생하는 자는 중사라 하였으며 초목을 먹어 천세를 사는 자는 하사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금은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자연의 성(性)이어서 장생을 배워 얻을 수가 있다”고 했다.

### (2) 수은이 금이 된다

옥첩기(玉牒記)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장생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 뿐이다. 수은을 응고시켜서 금을 만들면 정(釘)으로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

「동주경(銅柱經)」에서 말하기를 “단사는 금을 만들 수 있고 하차는 은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진짜이다. 군(君)이 그 도를 얻으면 그것으로 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 (3) 오도된 원소전환설(元素轉換說)

황산자(黄山子)가 말하기를 “천지에 금이 있다. 내가 곧잘 그것을 만든다. 이황일

적(二黃一赤), 즉시 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가 구갑문에서 말하기를 “나의 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천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을 소련하여 금으로 만들면 억만년도 더 갈 것이다 고인들이 어찌 우리들을 속이겠는가” 하였다.

## 제 V장 신선이 될 수 있는 묘약(妙藥)은?

### 1. 가난한 도인(道人)들

#### (1) 소금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도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이 빈곤하고 더군다나 약은 멀리 가야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난세에는 얻기가 매우 어렵다. 용염(戎鹽), 로함(鹵鹹)과 같은 것들은 천물이어서 평화시에는 돈을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것들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살 수 없었다. 강리(羌里)의 석담(石膽)은 천만금을 주고 단 한근을 구하려 해도 역시 손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쓸데 없이 그 처방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어찌 장탄식하지 않겠는가.

#### (2) 부귀한 자는 방법을 모른다

그 법을 알고 있는 자는 곧 도사는 빈곤하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수 없다. 부귀를 얻은 자들은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비록 이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 설혹 어느 정도 그것을 믿는다 하여도 스스로에게 금은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비하면서까지 그 약물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또 날고 있는 것을 쫓다가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후회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구태여 그런일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또 약을 사는 가격과 금은을 만들어냈을 때의 가격을 비교하면 큰 이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욕제계하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2. 신비한 방법을 전수(傳授)

### (1) 피로써 맹세

이것을 도가가 극비의 것으로써 존중히 여기는 이유는 불로장생의 방법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혈맹을 하고 이것을 전한다 만일 함당하지 못할 경우의 징계는 천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先師)는 경행(經行)을 하여 남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사람이 이것을 구하기를 지근(至勤)할 때 그렇게 지정(至精)으로 원하는 사람만을 선택하여 비로소 그것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 향차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어찌 선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 (2) 모든 것은 스승의 교육이 필요

오경을 읽을 때에도 하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림으로 해서 덕으로 나아가고 수업을 하여 나날이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육예를 비롯하여 농상의 들일, 그리고 목공의 작은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 (3) 황백의 술(黃白之術)

유명한 스승의 구결을 얻지 못하면 경솔하게 이것을 만들 수 없다. 의사들의 약은 하품에 속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효능이 있는 처방은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처방의 유용한 것들 중에는 후궁유녀벽축의 교 봉군(封君)·니환(泥丸)·목귀자(木鬼子)·금상지(金商芝)·비군근(飛君根)·복룡간(伏龍肝)·백마한(白馬汗)·부운재(浮雲滓)·용자단의(龍子丹衣)·야광골(夜光骨)·백화례(百花醴)·동추제(冬鄒齊)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쓸데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조차 구결을 얻지 못하면 알 도리가 없었다. 향차 황백의 술에 있어서라

## 3. 스승과 제자의 예절

### (1) 모든 것은 정성이 제일

세간에 흑간 장생의 도를 시험삼아 배워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자는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 근본문제의 해결을 얻어 보려고 하여도 도저히 얻어질 수 없을 것이 확실한 일이 아니겠는가.

배우는 자가 공손한 자세로 뛰어다니면서 하여도 사실은 스승에게는 작은 이익도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스승에 대한 제자의 마음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는 어찌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스승은 비결을 털어놓고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우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불사의 공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 (2) 진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보기는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만 도를 믿는 정성이 정신적으로 철저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의를 다하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태만의 정이 드러난다 만일 명지(明智)의 스승을 만나면 스승은 그 제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고의로 시간을 연장시키면서 시도해 볼 때 점차로 거짓의 마음이 폭로되기 때문에 스승은 최후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 (3) 기(氣)와 혈(血)

사람이 생겨날 때에는 우선 정신을 천지에서 받고 그 후에 기혈을 부모에게서 이어 받는다 그러나 명사에게서 영생의 도를 전수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화염은 시들어지고 만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논한다면 명사의 은혜는 천지보다 크고 부모보다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4. 오의(奧義)의 대요(大要)

## (1) 오의(奧義)

포박자가 말하기를 고인들은 질박하고 정직하여 실행하는 것은 귀중하게 여기고 말은 천하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문변을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설을 숭고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래

## ■ 抱朴子

서 풍속이 쇠퇴해지고 외식만 더욱 더 번지게 되어 문책이 유문(儒門)에 산적되고 내서도 복술가들에 의해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초학자들에게는 오의의 대요를 전수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말초적인 치부만을 즐기게 되었다.

### (2) 천편의 저서

도를 아는 자로써 이름이 있던 우길(于吉) 용숭(容嵩) 계백(桂帛)의 제자들이 각각 천여편을 저술했으나 거의 교계에 대한 말만이 많고 선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큰 골자의 요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진지한 결(訣)도 혹은 입으로 전하는 구전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혹은 짧은 비단의 천에 간단히 기록하여 옷의 깃속에 넣거나 혹은 허리띠 근처에 지니고 다니는 것 뿐인 상태였다. 따라서 훌륭한 스승에 따라 오랫동안의 년월이 되고 또 근면 노력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 (3) 요문(要文)으로 된 비법

잡스런 제자는 모두 제각기의 그 마음의 쓰임의 소밀(疎密)과 공부하기에 고통을 겪어나온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그리고 그 총명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또는 지력(志力)의 여하를 관찰하여 제각기 스승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천년 백년만에 단 한번 침낭 곧 베개속에 또는 주액 곧 겨드랑 아래에 그 비밀을 적은 것을 보팔할 수 있을 뿐이다. 혹은 그 약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히 죽지않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기에 일생동안 걸쳐서도 그 방문(方文)을 제자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다.

## 5. 선약(仙藥)은 명산(名山)에서 만든다

### (1) 명산에서 제조되는 9단(九丹)

포박자는 말하기를 이 금액구단(金液九丹)을 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명산에 들어가서 모든 인사(人事)를 끊고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제일의 금(禁)은 속인으로서 도를 믿지 않는 자로하여금 이것을 방선평훼(謗訕評毀)해서는 안된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절대로 작업이 성공하지 못한

다. 정군의 말에 의하면 이유인즉 이 대약을 조합시키기 위해서는 모두 다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면 곧 태을원군 노군 현녀들이 모두 와서 약을 만드는 사람을 감성(鑑省)한다.

만일 명산에 들어가 속인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장소에서 세상의 우인들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게하면 제신들께서 약을 만드는 사람이 경계(經戒)를 존승(遵承)하지 않고 악인들로 하여금 방횡하는 말을 하게 한 것을 책할 뿐만이 아니라 속인들의 사기가 발산하기 때문에 약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2) 선약(仙藥)은 소산(小山)에서 제조불능

정군이 말하기를 좌군이 이것에 관하여 이렇게 고하였다고 하였다 수많은 작은 산들은 모두 그 속에서 금액신단(金液神丹)을 만들 수 없다. 대체로 작은 소산(小山)은 모두 정신(正神)이 주인이 되는 일이 없고 대부분은 목석의 정(精)이거나 천세의 노물(老物), 혈식(血食)의 귀신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기로서 사람을 위하여 복을 주는 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곧잘 화를 줄 뿐이며 또 도사들을 시험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

## (3) 명산은 수도자에게 계시를 준다.

그와같은 명산 속에는 정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그중에는 혹은 지상의 신선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명산에는 모두 지초가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병대난(大兵大難)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단순히 약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만일 수도자가 그러한 산에 올라갈 것 같으면 반드시 그곳에 있는 산신이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틀림없이 약이 잘 만들어 진다

# 6. 산에 들어가는 방법

## (1) 흩어져 있는 백골

수도를 하고 약을 만드는 사람 혹은 전란을 피해서 세상을 도망치는 은거자는 거의 모두 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입산의 법을 모르는 자는 많은 화해(禍害)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언(里諺)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태화의 아래 백골이 낭자(狼藉)하다”라고 모두가 외골로 한 일만을 알고 널리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생을

## ■ 抱朴子

구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강사(强死)하게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다

### (2) 백일제계(百日齋戒)

명산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백일동안을 제계할 것. 그리고 오신생어(五辛生魚)를 먹지 않고 속인과도 서로 만나지 않으며 그렇게 한 후에 대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약이 다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완성된 후에야 제계를 그만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처음 약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만 제계하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 (3) 마귀를 쫓는 주문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육잡의 비축을 알아야 한다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임병투자개진열전향(臨兵鬪者皆陣列前行)”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글자가 아홉자(九字) 언제나 내밀히 이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 피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요도(要道)는 복잡하지 않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 (4) 보행법(步行法)

우보의 법은 우족을 세워서 앞에 있게 하고 좌족을 그 뒤에 있게 한다. 다음에 또 좌족을 앞으로 하고 다음에 우족을 앞으로 해서 좌족을 가지고 우족에 따르게 해서 합친다 이것이 일보이다. 다음에 또 우족을 앞으로 하고 좌족을 앞으로 해서 우족을 가지고 좌족에 따르게 해서 합친다. 이것이 이보이다. 다음에는 또 좌족을 앞으로 하고 다음에 우족을 앞으로 해서 좌족을 가지고 우족에 따르게 하여 합친다 이것이 삼보다 이처럼 하여 우보의 방법은 끝을 낸다 대체로 천하의 백술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우보를 알게 되면 여러가지의 일에 도움이 된다.

### (5) 거울의 위력

또 만물이 늙은 것은 그 정이 곧잘 사람 모습의 가면을 쓰고 와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또는 항상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나 거울 속에는 그 진형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곧 도사들이 입산할 때에는 모두가 직경 아홉치(九寸)이상의 명경을 등에 걸고 다녔다. 그래야만 노매도 감히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만일 노매가 접근해 와서 사람을 시험할 경우에는 즉시 거울 속을 들여다 보았다 가까이

온 존재가 선인이나 산중의 좋은 신일 경우에는 거울 속을 보았을 때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주소사매(鳥獸邪魅)일 경우에는 그 형체 그대로가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이었다. 또 만일 노매가 왔을 경우 그것이 그곳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엎드려서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때는 거울을 그쪽으로 돌리고 보면 되었다. 만일 그것이 노매일 경우에는 반드시 뒷꿈 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꿇꿈치가 있을 때에는 산신이었던 것이다.

## 7. 절곡(絶穀)

### (1) 장(腸)의 청결

도서에 장생을 얻으려면 장중(腸中)이 깨끗해야 되며 불사를 얻으려고 한다면 장중에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풀을 먹고 사는 것은 잘 뛰지만 명칭하고 육식을 하는 것은 힘은 세지만 거칠고 곡식을 하는 것은 지혜는 있지만 장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를 먹는 것은 정신이 명량하고 또 불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행기를 하는 사람들만이 말하는 편설(偏說)이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 (2) 금식일(禁食日) 백일(百日)

만일 금단대약을 복용하고자 한다면 우선 식사를 취하지 않은 날이 백여일 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다만 신선을 얻는데에 작고 또 늦어지는 것 뿐이어서 큰 방해는 없다고 한다. 만일 세상이 험란해져 산림에 숨어 살아야 할 경우 이 법을 아는 자는 아사(餓死)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다 해내지 못할 경우 갑자기 절식을 해서 안된다. 만일 갑자기 서둘러서 하는 때에는 큰 이익을 볼 수 없게 된다.

### (3) 40일 동안이 중요한 고비

장생을 하여 도(道)를 얻은 사람은 모두 약을 복용하고 기를 마심으로 해서 선도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단곡(斷穀)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선 대단한 고통이다. 그냥 부수(符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단순히 기를 마신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십일 동안에 피로하게 되고 몸이 야위게 되지만 이것을 잘 넘기면 또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된다.

## 제VI장 당신도 신령과 통할 수 있는가?

### 1. 중국(中國)대륙의 명산(名山)

#### (1) 22개의 명산

선경(仙經)을 믿고 정사(精思)하여 선약을 합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화산(華山) 태산(泰山) 괘산(霍山) 향산(恒山) · 숭산(嵩山) 소실산(少室山) · 장산(長山) 태백산(太白山) 종남산(終南山) · 여궤산(女几山) · 지폐산(地肺山) · 왕옥산(王屋山) · 포독산(抱犢山) · 안구산(安丘山) 잠산(潛山) · 청성산(靑城山) 아미산(娥眉山) · 수산(綏山, 또는 유산) · 운대산(雲臺山) · 라부산(羅浮山) 양가산(陽駕山) · 황금산(黃金山) · 별조산(鼈祖山) · 대소천대산(大小天臺山) 사망산(四望山) 개죽산(蓋竹山) 괘창산(括蒼山)이 있다.

#### (2) 갈 수 있던 명산

지금 중국의 명산은 가기가 어렵다. 강동의 명산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은 괘산(霍山)이 진안(晉安)에 있고 장산(長山), 태백(太白)이 동양(東陽)에 있으며, 사망산(四望山), 대소천대산(大小天臺山), 개죽산(蓋竹山), 괘창산(括蒼山)이 회계에 있을 정도다.

### 2. 신령(神靈)

#### (1) 산의 신령(神靈)

산은 대소없이 모두 신령이 있다 산이 크면 신도 크고 산이 작으면 신도 또한 작다 산에 들어가서 술이 없으면 반드시 환해를 당한다. 혹은 질병에 걸리게 되고 혹은 자상을 입으며 혹은 경포(驚怖)하여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혹은 이상한 빛과 그림자를 보기도 하고 혹은 이성을 듣고 혹은 대목이 바람도 없는데 저 혼자서 쓰러져 넘어지고 암석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스스로 굴러 떨어지고 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는 사람을 미혹케하거나 광주(狂走)케 하여 갯 속이나 산골짜기에 떨어지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호랑이나 늑대를 만나 화를 입게 되고 독충에게 물리기도 한

다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 (2) 모든 자연계엔 신령이 존재

산천초목 정조오지(井濠滄池)에는 역시 모두 정기가 있다 인신 중에 있어서도 혼백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는 더 이상없이 큰 것이기에 도리로써 정신이 있지 않을 수 없다 정신이 있으면 선한 것에는 상을 베풀고 악한 것에는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천지는 형체가 크고 더이상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보아 반드시 정신이 있어야 하게 되어 있다.

한편 신이 있으면 어김없이 선에는 상(賞)을 베풀고 악에는 벌을 주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체가 크기 때문에 망이 영성해서 반드시 활을 잡아당겨 쏘면 즉시 소리가 나는 것과는 서로 다른 것 뿐이다

천(天)은 높아서 낮은 세계를 듣고 어떠한 것이든 감시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선(善)을 행(行)하며 태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보를 얻게 된다.

### (3) 인간은 볼 수 없는 것을 신은 본다

인간은 스스로 신명을 견문할 수 없다. 그러나 신명은 자기를 견문하는 일이 아주 용이하다. 가사 커튼을 치고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방안에 들어 있으면 방안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거만한 행동을 취하면서 남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천지의 정신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종을 도둑질하려다 그것을 건드려 종의 소리가 크게 나자 타인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귀를 손으로 덮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3. 선인(仙人)은 신령을 극복한다

### (1) 인신(人神)과 천신(天神)

만일 유막을 나가지 않고 천하를 보게 되면 인신이 된다 혹은 삼황천문을 가지고 사명(司命), 사위(司危), 오악(五岳)의 군(君), 천백(阡陌)의 정장(亭長), 육정(六丁)의 영을 모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하고 대문(對問)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다루면 길흉이 소연해져 그것들이 손바닥 위에 있는듯, 원근유심(遠近幽深)없이 모든 것을 앞서 알 수 있게 된다.



## ■ 抱朴子

### (2) 마취제

혹은 육음(六陰)과 옥녀를 소집한다 그 방법은 64일이 걸린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오랫동안 역사할 수 있다 혹은 제사를 통해서 팔사(八史)를 한다. 팔사라고 하는 것은 팔괘(八卦)의 정이다.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갈화(葛花)와 추망마발(秋芒麻勃)을 수저로 떠서 복용하면 홀연히 잠자리에 눕고 싶은 졸음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미래에 관한 일을 듣게 되며 길흉을 즉시로 알 수 있게 된다

## 4. 거울과 신선

### (1) 7일 7야(夜) 동안의 명상

혹은 명경의 아홉치 이상의 것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비치고 명상하기를 칠일칠석을 하면 신선을 볼 수 있게 된다. 혹은 남자일 수도 있고 혹은 여자일 수도 있으며 혹은 노인일 수도 있고 소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신선을 본 후에는 마음으로 천리의 밖을 보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도 한다.

### (2) 거울의 사용법

명경은 혹은 하나를 사용하고 혹은 둘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일월경(日月鏡)이라고 한다. 혹은 넷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사규(四規)라고 한다. 사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비칠 때에 전후좌우에 제각기 하나씩 걸게 된다고 한다.

### (3) 사규(四規)에 나타나는 신선

사규를 사용하면 거기에 나타나서 비치는 신이 대단히 많다. 혹은 눈이 종목으로 되어 있고, 혹은 용을 타고 있거나 호랑이의 등 위에 올라타 있고, 관복채색이 세상의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모두가 경이나 도에 있는 것들이다. 그 도를 수행하고자 원한다면 우선 앞서 꼭 해야할 일은 제신의 성명위호(姓名位號)를 암송하고 그 의관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신선이 나타났을 경우 그 신의 이름을 몰라 크게 놀라거나 하여 해를 입을 수 있다.

#### (4) 제일 먼저 나타나는 노군(老君)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막유한한 임록(林麓)속에서 얻어야 한다 외형에 눈을 팔지 않고 외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삼동(三童) 구녀(九女) 절수군(節壽君) 구수사구(九首蛇軀) 백이십관(百二十官) 이 온다하더라도 그것을 익히 보면 안된다 만일 익히 볼 때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또 큰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답을 해서는 안된다 혹은 시종들이 빛가운데 나타나고 역사갑졸(力士甲卒)들이 혹은 용을 타고 혹은 호랑이를 타고 나타나며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와도 눈을 들어 쳐다보며 말을 곁어서는 안된다 다만 분명히 노자의 진형(眞形)을 생각나게 하고 노자의 진형이 나타나면 그때에는 일어서서 재배를 해야만 된다.

#### (5) 노자의 진형(眞形)

노군의 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려면 성은 이(李) 명은 답(聃) 자는 백양(伯陽). 신장은 구척, 황색을 하고 있으며 새의 주둥이 같이 코가 높고 눈썹은 길게 자라서 다섯치가 되고 귀의 길이는 일곱치 이마에는 삼리(三理)가 있으며 머리의 맨 위에서부터 발끝까지에는 팔괘가 있다 그는 신구(神龜)를 가지고 잠자리의 요를 삼고 금루옥당(金樓玉堂)에서 백은을 계단으로 하고 살며 오색의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관은 몇겹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었고 검은 끝이 뾰죽한 작은 창이 달려있었으며, 동자 120명을 거느리고 좌, 동(東)에는 12마리의 청룡(靑龍), 우에는 26마리의 백호(白虎)가 있었으며 앞에는 24마리의 주작(朱雀), 북에는 72마리의 원무(元武)가 있었다 전도는 12마리의 궁기(窮奇), 후종(後從)은 36마리의 벽사(辟邪) 뇌전(雷電)은 그 위에서 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일은 선경(仙經) 속에 기록되어 있다. 노군을 보면 년명(年命)이 연장되고 마음은 일월과 같이 맑고 밝아지며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 5. 사명(司命)과 삼시(三尸)

#### (1) 생명을 관장하는 사명

“연내계(易內戒)” 및 “적송자경(赤松子經)” 및 “하도기명부(河圖記命符)”를 놓고 볼 때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에는 죄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사람이 저지르

## ■ 抱朴子

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산을 뺏는다 산이 감해지면 그 사람은 빈곤해지고 또 질병에 걸리게 된다. 때때로 걱정과 근심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산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다 제반사에 걸쳐 산을 빼앗기는 경우는 수백가지가 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 (2) 인간의 죄악을 고하는 삼시(三尸)

또 말하기를 신중에 삼시(三尸)가 있다고 했다 삼시의 존재는 형이 없다고 하여도 실은 혼령귀신에 속하는 것으로써 사람을 빨리 죽게하는 것이라 한다 이 시는 언제나 귀신이 될 수 있어서 스스로 방종하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올리는 제사의 제물을 빼앗기도 한다 그래서 경신(庚申)의 날이 될 때마다 그것은 상천하여 사명에게 사람의 과실을 보고한다 또 월晦(月晦)의 날의 밤에는 술의 귀신도 또한 상천하여 사람의 죄상을 보고한다 그래서 큰 죄는 기(紀)를 빼앗는데 기는 300일을 말한다. 한편 작은 죄는 산을 빼앗게 되는데 산은 3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한 진위를 상세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의 도는 심원하여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 (3) 산(算)과 기(紀)

무릇 한 일이 있게 되면, 이것을 일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사명이 그 산기(算紀)를 빼앗는다 그렇게 해서 산이 다 빼앗기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악심이 있어도 악을 행동하지 않는 자로부터 산을 빼앗고 악사를 저질러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로부터 기를 빼앗는다

### (4) 산(算)과 기(紀)는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

만일 산기(算紀)를 아직도 다 빼내지 않았는데 자살을 한 사람은 그 모두의 재앙이 자손에게 이르른다 타인의 여러가지의 재물을 횡탈한 자는 그 처자가구를 계산해서 거기에 충당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있다 다만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다.

### (5) 많은 재앙은 죄업의 대가

그 악업이 만일 가인을 죽이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드디어는 수화겁도(水火劫盜)를 만나거나 혹은 기물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또는 현관

의 질병 때문에 스스로 의약을 장만해야 되고 제사 때에 제물을 들이는 비용을 부담하여 그 경비가 전에 사람으로부터 약탈한 재물과 상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 (6) 소단(小丹)의 법

소단(小丹)의 법은 단 1근에 순고주(淳苦酒) 3근, 칠(漆) 2근을 찌어 잘 걸러 삼물(三物)을 합하여 상득(相得)케 해 미화상(微火上)에 전(煎)하여 환약을 만든다. 그것을 마자(麻子)와 같이 만들어 삼환(三丸)을 복용하되 하루에 재복하여 30일이 되면 복중의 백병이 치유되고 삼시는 떠난다. 또 이것을 복용하기를 100일이 되면 기골강건(肌骨強堅)하고 1천 일을 복용하면 사명사적(司命死籍)을 삭거(削去)한다 그리고 천지일월과 함께 불사를 얻기에 이르른다. 이에 더하여 그 몸과 용모가 변하여 갑자기 젊어지고 한낮에 서 있어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빛의 근원이 따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6. 신선의 술(仙術)

### (1) 물속을 걸어 다니는 약

천세의 사간은 그 하근은 앓아 있는 사람과 같다. 길이는 일곱치(七寸). 이것에 상처를 내면 피가 나온다. 그 피를 발바닥에 바르면 물 위를 걸어다녀도 물속에 빠지지 않는다. 또 이것을 사람의 코에 바르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그것 때문에 열리고 그 밑바닥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또 이것을 몸에다 바르면 즉시로 몸이 숨겨져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몸을 눈에 보이도록 하고 싶으면 발랐던 것을 닦아내면 된다.

한편 이것은 병도 치료할 수 있는데 병이 뱃속에 있을 때 이것을 잘게 깎아서 한 손가락을 복용한다 또 종기의 통증이 외부에 있을 경우, 한 손가락을 갈아서 종기의 아픈 곳이 있는 곳에 바르고 문지르면 손 밑에서 즉시로 치료된다

만일 왼쪽발에 질병이 있으면 사간을 그 사람의 왼쪽발에 바른다. 또 그 나무를 깎아 갈아서 거승(菴勝) 곧 깨와 합쳐 촛불을 만들면 밤에 땅속까지 환하게 비쳐 금옥보장이 있으면 그 빛이 즉시 청색으로 변해 아래로 향해 비치기 때문에 쟁기를 가지고 그것을 파 올리면 모두 얻게 되는 것이다. 또 이것을 분말로 해서 복용하기를 10근을 먹으면 천수를 누린다.

## (2) 다섯가지의 신도(神道)

어느 한 사람이 모습을 감추는 은론(隱論)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포박자가 말하기를 신도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앉아 있으면 모습이 보이고 서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도 그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불로장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턱대고 이러한 짓을 하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전란이 일어나서 위험한 때에는 하는 수없이 이러한 짓을 하여 자기 몸을 수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 7. 노자와 장자와 신선의 도

### (1) 대신선 노자(老子)

또 5천문은 노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거칠고 넓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수미일관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만일 다만 이 경을 암송하는 것 뿐, 그 요도(要道)를 얻지 못한다면 헛수고에 그치는 것 뿐일 것이다.

### (2) 장자(莊子) 문자(文子) 관령윤희(關令尹喜) 등

문자(文子) 장자(莊子) 관령윤희(關令尹喜)의 도(徒)에 이르러서는 그 문필에 속하는 것들이 역시 황로(黃老)를 조술(祖述)하여 깊은 허무의 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지언(至言)이라고 할 정도의 것은 없다. 혹은 생사가 일여하다고 하면서 사는 것을 노고라 하고 죽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과는 천여리 밖에 떨어져 있는 상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8. 신비스러운 일(一)

### (1) 하나(一)의 중요성

포박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스승에게 듣고 말하는 바이다

사람이 곧잘 하나 곧, 일(一)을 알면 만사를 졸업한 셈이 된다. 일(一)을 아는 자는 무엇 하나 모르는 것이 없게 된다. 일(一)을 모르는 자는 하나, 곧 일(一)도 모르는 셈이 된다.

(2) 천지인(天地人)의 삼일(三一)

도(道)는 일(一)에서부터 일어난다. 그 귀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바가 없다. 이 일(一)이 셋(三)으로 나누어져서 천지인의 상을 띄게 되었다 그래서 삼일(三一)이라고 한다. 천은 일을 얻어 맑아지고, 지는 일을 얻어 편안하다. 사람은 일(一)을 얻어 생하고 신은 일(一)을 얻어 영(靈)이 된다

(2) 하나는 생명의 근본

금은 물 속에 가라앉고 털은 물 위에 떠오른다. 산은 높이 솟아 강물이 흐른다. 이것을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하여도 들리지 않는다. 이 일은 자각하면 있고 망각하면 사라져 버린다 일을 향하면 길이 되고 이것을 배반하면 흉이 된다. 일(一)을 자기 안에 확보하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마르고 근본의 기가 막혀버린다.

(3) 황홀한 가운데 상(象)이 있다

노자가 말하기를 홀하고 황하지만 그 속에 상이 있다 단 황하고 홀하지만 그 속에 물이 있다고 했다. 모두가 일(一)을 말한 것이다 선경(仙經)에 말하기를 자(子)장생(長生)하기를 원하면 일(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을 생각하면서 굶주리게 되면 일(一)이 양식을 줄 것이다. 또 일(一)을 생각하고 목이 마를 때에는 일(一)이 이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4) 상단(上丹) · 중단(中丹) · 하단(下丹)

일에는 성자(姓字)와 복색이 있다 남자는 장(長)이 구푼, 여자는 장이 육푼이다. 혹은 배꼽 아래 두치사푼의 하단전(下丹田) 속에 있고, 혹은 심장의 아래 강궁금궤(絳宮金闕)의 중단전(中丹田)에 있다. 혹은 사람의 양미사이에 있어서 각행(却行)하기를 한치의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며, 두치의 자리를 동방(洞房)이라고 하며, 세치를 상단전(上丹田)이라고 한다 이것은 도가들이 귀중히 여기는 자리로서 세세로 피를 가지고 맹세하면서 그 이름을 구전으로 전한다고 한다.

9. 자연(自然)

(1) 변형은 하늘도 억제하지 못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부

## ■ 抱朴子

터 받은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을 옮기고 바꾸고 빼앗고 주고 하는 것은 하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금석이 용광로 속에서 녹고 와기(瓦器)가 도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욱이나 그 동철이 예리한가 둔한가 또 옹앵(甕罍)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용광로나 솥의 자유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 (2) 천지도 모른다

혼망부판(渾茫剖判)하여 청탁이 나란히 있다가 혹은 올라가서 움직이고 혹은 내려가서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천지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 제Ⅶ장 개인은 숙명적인 운명을 타고 나는가?

### 1. 천지와 만물(萬物)과 나

#### (1) 음·양·화(陰陽和)의 삼기(三氣)

만물이 기에 감응하여 자연히 생성하고 있다. 그 천지와 일물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다만 만들어지는데 선후가 있고 그 체에 거세(巨細)가 있을 뿐이다 천지가 대이기 때문에 만물이 소로 느껴진다. 또 만물이 소이기 때문에 천지가 대로 느껴진다

#### (2) 오장(五臟)

복배(腹背)는 오장을 싸고 있지만 오장은 복배가 만든 것이 아니다 피부는 혈기를 감싸고 있지만 혈기는 역시 피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천지는 만물을 품고 있지만 만물은 천지가 만든 것이 역시 아니다. 예를 들면 초목이 산림 속에서 움이 나서 자라지만 산림이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나 자라도 수택(水澤) 속에서 산육(産育)되지만 수택이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 (3) 만물(萬物)은 천지의 자손

속인들은 천지는 대이기 때문에 만물은 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만물은 천지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라 했다.

#### (4) 자연적인 것

이는 내 몸에서 생기지만 내 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물론 슬은 내가 아니면 생겨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슬의 부모가 아니다 슬이 내 자손도 아니다 식초에서 벌레가 생기고, 목석에서 버섯이 생기며, 오수(污水)에서 길굴충(蝸蠃蟲)이 생기며, 송지(松枝)에서 취라닝쿨이 영클어지지만 그 사물(四物)은 장인들의 창안한 것들이 아니다. 만물과 천지 사이의 모든 관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 (5)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천에는 일월한서가 있고 사람 곧 인(人)에는 침시호흡(瞻視呼吸)이 있다.

먼 것을 가지고 가까운 것으로 비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추측할 때 사람은 스스로 노소통양(老少痛痒) 곧 그 몸이 늙고 젊고 혹은 아프고 혹은 가렵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천도 또한 스스로의 그 체의 영축재상(盈縮災祥), 곧 차고 곁여되고 길하고 흉하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인간도 이목을 항상 총명하게 하고 영위를 잘 철열하게 할 수 없다 하늘도 역시 일월로 하여금 박식(薄蝕)하지 못하게 하고 사시(四時)의 순서를 잃어버리지 못하게 할 수 없다.

## 2. 운명과 자유

### (1) 운명적인 것

앞에서의 설명에 기초를 두고 논한다면 대수(大壽)의 일이 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仙)을 하느냐 선을 하지 않느냐 하는 바퀴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를 생케 한 자는 부(父)요 나를 잉태한 자는 모(母)니라 그런데 나의 형기(形器)를 건전케 하고, 나의 자용(茨容)을 아름답게, 그리고 성리(性理)는 평화롭게 지혜는 고원하게, 기력은 강하고, 수명은 연장되도록 부모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간혹 가서는 키는 작고 몸은 약하고 혹은 얼굴 색깔이 검어서 밋고, 병어리나 장님이 되어서 그 성격이 완고하고 혹은 절름발이가 되기도 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니다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향차 천지와 같은 멀고 넓은 존재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부모는 우리와는 먼 존재다.



## ■ 抱朴子

### (2) 자신의 건강도 좌우할 수 없는 인간

내가 스스로 나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오래 젊게 하지 못하여 늙게 되고 또 항상 건강케 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며 기쁨이라든가 노여움이라든가 또 계획도 후회도 하지 않도록 할 수 없다. 기를 받아 형을 만들어 주는 자는 부모다. 그것을 받아 보유하는 것은 나의 신체인 것이다. 부모와 나와 관계처럼 친밀한 사이는 더이상 없고 그러면서도 부모도 나도 자기들의 신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양자의 사이에는 이미 아무런 손익도 있을 수 없다. 향차 천지도 나를 놓고 어찌할 수 있겠는가

## 3. 점성술(占星術)과 자연(自然)

### (1) 천도(天道)는 후박(厚薄)이 없다

포박자는 말하기를 명의 장단은 사실상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기를 받아 결태가 이루어질 때는 제각기의 성숙(星宿)이 있다. 천도는 무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한지 있는 그대로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대한다 친(親)도 없고 소홀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 (2) 인간의 숙명(宿命)

명이 생성(生星)에 속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도를 좋아하게 된다. 선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얻어진다 그러나 명이 사성(死星)에 속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선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 선도를 믿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이것을 수도(修道)하지 못하게 된다

### (3) 신선이 되는 것도 숙명(宿命)

선경에서 말하기를 여러가지의 선을 얻는 사람은 모두 제각기의 명을 받는다.

우연히 신선의 기를 만나서 자연히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포태(胞胎) 속에서부터 이미 선도를 믿을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물심이 불게 되면 선도를 좋아하게 되고 반드시 명사(明師)를 만나서 그 법을 얻게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선도를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또 구한다 하더라도 선도를 얻을 수 없게 된다.

#### (4) 인간과 별(宿)

옥검경주(玉鈐經主)의 명원(命原)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길흉은 법칙으로써 결태수기(結胎受氣)의 날에 있어서 상공에 있는 열숙(列宿)의 정을 얻게 된다 그 성숙(聖宿)을 만나면 성인 되고 현숙(賢宿)을 만나면 현인이 되며 문숙(文宿)을 만나면 문인이 된다. 그리고 무숙(武宿)을 만나면 무인이 되고 귀숙(貴宿)을 만나면 귀인이 되며 부숙(富宿)을 만나면 부인이 된다. 천숙(賤宿)을 만나면 천인이 되고 빈숙(貧宿)을 만나면 빈인이 되며 수숙(壽宿)을 만나면 수인(壽人)이 되고 선숙(仙宿)을 만나면 선인이 된다 또 신선성인(神仙聖人)의 숙이 있고 치세성인(治世聖人)의 숙도 있다 그런가하면 이숙(二宿)을 겸하는 숙도 있다 또 귀하되 부하지 못하는 숙도 있으며 부귀를 겸하는 숙도 있다. 앞서서 부하고 후에 가서 빈하는 숙이 있고 앞서 귀하고 후에 천하게 되는 숙도 있다 빈천을 겸하게 되는 숙이 있는가 하면 부귀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숙도 있다 또 충효의 숙이 있고 흉악의 숙이 있다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대략이 이와같은 것이다. 이처럼 인생은 본래 정명(定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장차자(張車子)의 설인 것이다

#### (5) 신선도 인간과 동일하다

그 수명의 선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나날이 선인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들은 이종(異種)의 사람들이어서 천하의 별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혹은 그들을 말하여 요귀(妖鬼)의 변화라고도 하고 혹은 우연히 자연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수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다 선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적송(赤松)이나 왕교(王喬)같은 대선인이 귀를 들어 이야기하여도 역시 그들도 요귀라고 생각하게 된다

### 4. 있는 것(有)과 없는 것(無)

#### (1) 기(氣)의 고갈은 생명을 상실

유는 무에 의해서 생하고 형은 신에 의해서 선다 유는 무의 궁(宮)이며 형은 신의 저택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제방에 비유해 보면 제방이 파괴되면 물은 그 속에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을 또 촛불에 비교해 보면 촛불이 다 타버리고 말면 불이 켜진 채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 抱朴子

몸이 피로하면 정신이 흩어지고 기가 다해버리면 생명은 끝이 난다 뿌리가 마르고 가지와 잎만이 무성하다 하더라도 청청(靑靑)한 나무는 시들고 만다 기가 피로한데 욕망에 넘쳐 행동하면 정령은 몸에서부터 떠나버리고 만다

### 5. 성인(聖人)과 선인(仙人)

#### (1) 주공(周公)과 공자(孔子)

혹은 질문하여 말하기를 만일 신선이 꼭 얻어야 할 것이라면 성인(聖人)이 이미 그것을 수행(修行)했어야 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공(周孔)이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선도(仙道)는 거짓이라는 말이 된다

#### (2) 성인(聖人)들의 임무

포박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성인은 반드시 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인은 또 반드시 성인이 아니다 성인이 명을 받는데 있어서 장생의 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스로 잔(殘)을 제거하고 적(賊)을 떠나 위험을 없이 하고 폭력을 평화롭게 하며 예를 제정하고 악을 만들며 법을 저술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의 풍속을 없애고 유둔(流遁)의 풍, 곧 세상을 피하여 제멋대로 풍습을 바꾸고 위험에 처해있는 군주를 구하며 멸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나라를 돕기 위하여 시서(詩書)를 출간하고 하락(河洛)을 선정하여 서적을 만들고 경고(經誥)를 저하며 아송(雅頌)을 화(和)하고 동몽(童蒙)을 가르치고 제국(諸國)에 사신을 보내며 연돌(煙突)이 검게 하고 자리가 따뜻한가 할 정도로 여가가 없이 사업을 양장(鞅掌)하기에 바빠서 연중 휴식할 시간이 없다

#### (3) 선인(仙人)의 수업법

곧잘 청을 폐(閉)하고 명(明)을 덮어서 내시반청(內視反聽)하고 호흡도인(呼吸導引)하여 장제구결(長齋久潔)하면서 실(室)에 들어가서 형(形) 곧 신체를 수련하며 산에 들어가서 약을 채취하고 호흡의 훈련을 하면서 신을 생각하고 곡물을 단식하고 장(腸)을 깨끗이 해야 된다.

#### (4) 치세의 성인과 득도의 성인

속인들이 말하는 성인은 모두 치세의 성인으로서 득도의 성인은 아니다 득도의

성인은 황제나 노자다. 치세의 성인은 주공과 공자인 것이다. 황제는 앞서 치세를 하고 후에 등선(登仙)을 했다 이것은 양자를 겸하는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 (5) 성인(聖人)의 부류

세인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놓고 성(聖)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이나 장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두는 사람을 기성(棋聖)이라고 한다. 엄자경(嚴子卿)과 마유명(馬綏明)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성이다. 사서를 잘하는데 있어서 두각을 비상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서성(書聖)이라고 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으로써 황상(皇象)과 호소(胡昭)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한편 도화(圖畫)를 잘 그려 비교할만한 자가 없는 사람을 화성(畫聖)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협(衛協)과 장묵(張墨)이 있다. 각삭(刻削)을 아주 잘 해내는 사람을 목성(木聖)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장형(張衡) 마균(馬鈞)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맹자가 말하기를 백이(伯夷)는 청(淸)의 성자(聖者)이며 유하혜(柳下惠)는 화(和)의 성자(聖者)요 이윤(伊尹)은 임(任)의 성자이니라고 했다

#### (6) 여타의 성인들

내가 시험삼아 이것을 논한다면 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일사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성이란 인사의 극호인 것이다. 단 한가지 문학에 있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 (7) 도둑도 성인(聖人)의 도가 있다

장주(莊周)가 말하기를 도적에도 성인의 도가 다섯이 있다 망의(妄意)하고 사람의 창고를 아는 자는 명(明)하다 선입(先入)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는 용(勇)이다. 후출(後出)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의(義)니라. 가부(可否)의 의(宜)를 아는 자는 지(知)이며, 재(財)를 나누어 균등하게 하는 자는 인(仁)이니라. 이 도를 얻지 않고서 천하의 대도가 되는 자는 아직 없다.

#### (8) 성인도 경박의 차가 있다

혹은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도는 나무가지와 같이 나누어지고 나뭇잎과 같이 질 수 없다 반드시 모든 것이 이것을 겸하고 그 후에 성이 된다” 나는 이것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공자(孔子)의 문도(門徒) 달자(達者)가 72명이었고 각자가 성인의 일

## ■ 抱朴子

체를 얻었다 성사에도 부판(剖判)이 있다” 또 말하기를 “안연(顏淵)은 신체가 약했으니 역시 성사(聖事)에 후박(厚薄)이 있다”

### (9) 득도(得道)의 성인과 치세(治家)의 성인

또 역에서 말하기를 성인의 도에는 네가지가 있다고 했다 역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변(辭)을 존중해야 하고 역(易)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역의 변(變)을 존중해야 하고 역에 의해서 도구를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象)의 변화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은 성도도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도덕에 선하며 신선을 지키는 자만이 혼자서 이것을 말하면서 득도의 성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득도의 성이 없으면 주공(周孔)도 치세의 성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성의 도가 이미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겸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 6. 근본(本)과 말(末)의 철학(哲學)

### (1) 도(道)의 선후

혹 사람들이 유도의 선후를 질문하였다. 포박자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도는 유之本이요 유는 도의 말이다 [중략(中略)] 대체로 도라고 하는 것은 상(上)은 천지에서부터 하(下)는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의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황로(黃老)는 그 본을 붙잡고 있고 유목은 그 말을 치하고 있을 뿐이다.

### (2) 유가(儒家) 도가(道家) 묵가(墨家) 등

도를 체득하여 물을 만들고 덕을 보배삼아 장생하는 자는 황노가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황제는 곧잘 세상을 치리하고 태평세계를 이룬 후 승천하였다 이것을 두고 요순보다도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자는 앞서 예교(禮敎)를 겸하여 총괄한 후 장생하였다 이것을 주 공(周孔)보다도 못하다고는 역시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니(仲尼) 곧 공자는 남모르게 그들과 비교하고는 한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비방하고 시기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그런데 말세의 속인들은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목(儒墨)을 배워 도가를 비방했다 이것이 자손들이 선조와 아버지를 욕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하겠다. 자연히 찾아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이 이상 더할 수 있겠는가.